박성화호 8강 가려면…

2008 베이징올림픽 축구 본선 조별리그에서 카메룬, 이탈리아, 온두라스와 만나게 된 올림픽 대표팀이 4강 진입을 위한 채비에 들어간다.

카메룬·온두라스 꼭 잡아야

정보수집팀 가동 전력 분석

全勝 조 1위로 본선행 목표

지난 1월 스페인 전지훈련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였던 박성화호는 상대 팀에 대한 정보수집팀을 가동할 계획이다.

D조에 편성된 한국은 올림픽 하루 전인 8월7일 카메룬과 조별리그 개막전을 치르고 이탈리아(10일), 온두라스(13일)와 차례로 맞붙는다.

카메룬과 이탈리아전은 친황다오 올림픽스포츠센터 스타디움(수용관중 3만2천명), 온두라스와 경기는 장소를 옮겨 상하이스타디움(수용인원 8만명)에서 각각 열린다.

조 추첨 행사차 베이징을 방문한 박성화 감독과 홍명보 코치는 21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펼쳐질 상하이경기장을 둘러본 뒤 22일에는 친황다오스포츠센터 스타디움을 찾아 운동장과 훈련장, 숙박시설을 점검하고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박성화 올림픽대표팀 감독은 지난 3월 24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북중미카리브연맹(CONCACAF)컵 최종 예선 당시 온두라스가 미국을 1-0으로 꺾는 장면을 지켜봤다.

박 감독은 "온두라스는 세 팀 중 유일하게 전력을 분석한 팀이다. 미드필더진과 수비가 탄탄해 미국보다 오히려 낫다. 이탈리아, 카메룬 못지않게 안심할 수 없는 팀"이라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위 이탈리아와 아프리카 예선을 1위로 통과한 카메룬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백지여서 박 감독이 직접 해당팀 경기를 관전하거나 정보수집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다행히 이탈리아올림픽팀이 다음 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툴롱국제대회에 참가한다.

이탈리아는 5월21 코트디부아르, 23일 터키, 25일 미국과 맞대결이 예정돼 있다. 첫 상대인 카메룬도 6월12일 일본에서 일본팀과 평가전이 예정돼 있다.

상대팀 전력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박성화 감독은 "이탈리아, 카메룬을 철저하게 분석하기 위해 축구협회 기술위원회와 협의하겠다. 조 1위로 8강에 오르겠다는 목표인 만큼 전승을 올린다는 각오로 경기에 임하겠다"고 결의를 드러냈다.

한편 박성화호는 일정을 앞당겨 K-리그 일정이 비는 5월26일을 대표팀을 소집해 3주 훈련을 한 뒤 7월21일부터 마지막 담금질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女 力士' 장미란 올림픽 금 '비상'

최대 라이벌 중국 무솽솽

+75kg급서 비공인 세계新

장미란(25·고양시청·사진)의 최대 라이벌 무솽솽(24·중국)이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면서 한국이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 역도에서 금메달을 따내려는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대한역도연맹에 따르면 무솽솽은 지난 18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에서 열린 2008 중국 역도 대표팀 선발전 여자부 최중량급(+75kg)에 출전해 인상 145kg 용상 183kg 합계 328kg을 들어 올려 우승했다.

무솽솽은 이 대회에서 종전 인,용상 세계 신기록을 뛰어 넘는 괴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장미란 최고 합계 기록보다 무려 9kg이나 더 들었다. 현재 여자 최중량급 합계 세계 기록은 장미란과 무솽솽이 지난 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타이를 기록한 319kg이다. 인상 세계 기록은 무솽솽이 2006년 12월 도하아시안게임에서 든 139kg이며, 용상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탕궁훙(중국)이 수립한 182kg이다. 하지만 무솽솽 기록은 중국 대표선발전이 자국 선수들만 참가하는 대회로 치러지면서 국제역도연맹(IWF)으로부터 공인 받지 못했다.

무솽솽이 비공인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역도연맹은 비상이 걸렸다.

장미란의 합계 기록으로는 8월 열릴 베이징올림픽에서 무솽솽을 능가하기 어렵게 때문이다. 장미란이 공식 대회에서 출전해 자신이 세운 최고 기록은 인상 138kg, 용상 181kg 합계 319kg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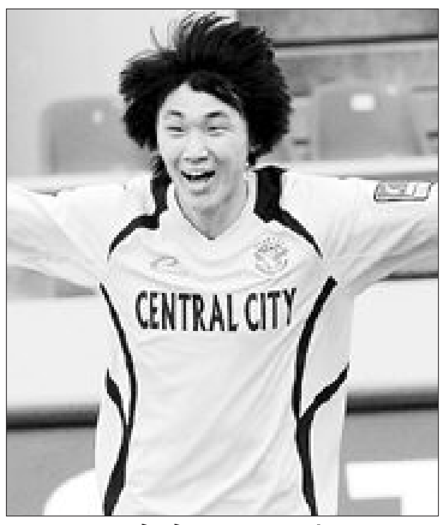
최성용 역도연맹 부회장은 "장미란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놓고 무솽솽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 준비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이어 "무솽솽이 인상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 하지만 국내 대회에서 나온 기록이라 올림픽과는 다를 수 있다. 장미란이 바로 무솽솽의 기록에 도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신인왕 경쟁 초반 2파전

조동건 4골·서상민 3골 질주

박현범(수원)·이승렬(서울) 가세



성남 조동건

경남 서상민

단 한 번 뿐인 K-리그 신인왕 트로피를 향한 새내기 스타들의 초반 기 싸움이 뜨겁다.

정규리그 6라운드와 컵 대회 3라운드를 마친 21일 현재 올해 프로에 데뷔한 조동건(성남·4골)과 서상민(경남·3골)은 '톱 10'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스타급 골잡이들과 어깨를 견주고 있다.

무패행진 중인 수원에서 주전 미드필더로 자리를 굳힌 박현범(1골1도움)과 '조커 요원' 조용태(1골2도움)는 물론 FC서울의 이승렬(1골1도움)도 신인왕 경쟁에 가세했다.

'신인 5인방' 중에서 확실히 기선제압을 한 주인공은 역시 조동건과 서상민이다. 신인왕 후보 1순위 조동건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 4경기에 출전해 4골 2도움으로 무섭게 활약하며 선배들의 기를 죽이고 있다. 더구나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두 경기 연속 2골을 터트린 뒤, 두 경기 연속 도움을 기록하는 절정의 경기 감각으로 성남의 정규리그 6경기 연속무패(4승2무) 행진을 이끌고 있다.

hauzen 삼성 하우젠 K리그 2008

도민구단 경남FC에서 서상민의 활약은 알토란 같다.

개막전에서 두 골을 터트린 서상민은 시즌 초반의 활약을 토대로 지난달 26일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2차전 남북대결을 앞두고 국가대표팀에 뽑히며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다는 행운을 차지하기도 했다.

개막전 두 골 이후 한동안 골 가뭄에 시달렸던 서상민은 20일 인천전에서 40일 만에 골 맛을 보면서 득점포 재가동에 나섰다.

서상민의 골이 터진 날 경남은 4경기 연속 무승행진을 끝내고 무려 다섯 경기 만에 시즌 2승째를 추가하면서 서상민은 '승리를 부르는 사나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페더러 시즌 첫 승 '횡재'

결승 도중 다비덴코 기권

ATP 에스토릴 오픈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27·스위스)가 힘들이지 않고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 1위 페더러는 21일(한국시간) 포르투갈 에스토릴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에스토릴오픈 단식 결승에서 니콜라이 다비덴코(4위·러시아)가 2세트 도중 기권하는 바람에 싱겁게 우승컵을 받아 들었다. 1세트를 타이브레이크 끝에 내준 다비덴코는 2세트 네번째 게임을 치르다 왼쪽 다리 상태가 좋지 않다며 경기를 포기했다. 페더러는 다비덴코를 상대로 12전 전승을 거뒀다.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를 겸한 이 대회 여자단식에서는 마리아 키릴렌코(32위·러시아)가 이베타 베네소바(132위.체코)를 2-0으로 꺾고 개인 통산 3승째를 거뒀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열린 WTA 투어 패밀리서클컵에서는 서리나 윌리엄스(9위.미국)가 우승을 차지했다. 윌리엄스는 베라 즈보나레바(17위·러시아)를 2-1로 물리치고 시즌 3승을 품에 안았다.

"체육단체 대폭 구조조정"

신재민 문화차관 밝혀

정부가 체육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뜻을 거듭 밝혔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21일 오후 2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3회 한국스포츠클럽(KSC) 정기포럼에 참석해 "체육 관련 단체들의 기능을 재분배하는 구조조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차관은 "KOC(대한올림픽위원회)를 체육회에서 분리시켜 스포츠외교에 집중하도록 하고 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통합해 체육 저변을 넓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인촌 문화부장관은 하루 전 기자간담회에서 "체육회와 KOC 등의 업무가 중복되는 점이 있으면 조직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가 조만간 체육계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2004년 10월 체육회와 KOC는 물론 국체협까지 완전 통합해 '대한올림픽체육회'로 재탄생하는 방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그러나 정권교체 이후 다시 문화부가 체육회와 KOC의 분리쪽으로 방향을 잡음에 따라 체육계는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새로운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스포츠중계

22일 (화)

▲제 63회 전국 남녀 종별배구선수권대회 남고부 결승전(14 : 00·KBS N SPORTS)

▲2008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 요코하마〉(17 : 45·SBS스포츠)

▲2008 프로야구 〈SK : 롯데〉(18 : 20·X-PORTS), 〈두산 : 삼성〉(21 : 00·SBS스포츠), (18 : 00·KBS N SPORTS·MBC ESPN)

23일 (수)

▲07/08 UEFA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리버풀 : 첼시〉(03 : 30·MBC ESPN)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써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무등산영양돌솥밥 서구 치평동 중흥1차@앞 영양돌솥밥 전문점,단체소님환영 대표 이 동 찬 ☎(062)373-1080

창평국밥 북구 양산동 신흥택시건너 각종국밥 전문점 대표 이 한 승 ☎(062)571-2566

광주본동동우체국 북구 본촌동647-3 우체국택배,전자우편,국제특송,우체국보험 대표 박 인 천 ☎(062)571-1293

Y텔레콤 북구 양산동 양산방죽 건너편 SK,SHOW,LG 전문점 공짜폰 행사중 대표 김 태 형 ☎(062)573-2010

용봉커피숍 북구 용봉동 택지지구 엄라랑뷔페옆 커피전문점 대표 김 정 민 ☎(062)521-5989

전통옛날국밥 동구 지산동 병원정문앞 농협옆 머리국밥,내장국밥,암뽕순대,수육전골전문 대표 박 안 순 ☎(062)222-9998

용궁반점 북구 문흥동 문산초교앞 중화요리 전문점,호텔 주방장이 직접요리 대표 황 성 주 ☎(062)251-8288

하이파이하우스 서구 금호동 미재마을 네비게이션,카오디오전문 대표 김 대 진 ☎(011)603-1521

미담식당 북구 우산동 서방시장건너 무등장례식장 입구 생삼겹살,쭈꾸미쌈밥,해물된장찌개,김치찌개 대표 최 공 례 ☎(062)524-2091

원광맥한의원 북구 양산동 양산택지4거리 광주은행건너 정통 팔 체질의학 대표 한 세 현 ☎(062)576-8875

회무침포차 북구 용두동 양산타운 정문앞 천기토 사우나옆 대표 이 맹 자 ☎(062)575-0912

미소튀김 동구 계림동 한국화장품 뒤편 튀김전문점〈치킨 배달시 튀김1인분 서비스〉 대표 정 동 현 ☎(062)233-8246

하남명가 광산구 하남동사무소앞 생고기,갈비살,생삼겹,돼지갈비,불낙 대표 박 창 규 ☎(062)952-8549

별미정 북구 문흥동 금호@108동건너 그린축산옆 콩나물국밥,묵은지탕,단체예약환영 대표 강 미 임 ☎(062)251-3833

쉴S'미술 북구 오치동 한전후문 하 오치경로당 맞은편 유화,수채화,아크릴화,실용디자인,회원수시모집 대표 전 은 실 ☎(010)3014-8310

광회네 서구 농성동 서구청앞 생선구이,생선조림,생고기특식전문,미출형식단운영 대표 김 광 희 ☎(062)352-8778

행원당한약방 북구 양산동 청암@앞 양지초등학교옆 이전개업,각종 난치병상담 ☎(062)265-8167

이가네수라상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4거리 대구,생태,동태탕 전문 대표 이 철 희 ☎(062)571-7030

유화허브 동구 대의동 동부경찰서와 금남로방향 정규조기유학,어학연수,비자상담 환영 대표 이 춘 화 ☎(062)263-3434

태평선식(화정점) 서구 화정동 염주사거리 광주은행 맞은편 영양식,환자식,체질식등 건강기능식품 ☎(062)371-8998

문산골가마솥곰탕 북구 문흥동 우체국건너 진달래 놀이터옆 곰탕 전문점 대표 박 오 순 ☎(062)265-1237

행복이용원 서구 화정동 대주@후문 염주맨션 정문앞 1급 모범업소,기술본위 대표 박 홍 수 ☎(010)2626-9225

운남직업소개소 광산구 월곡동 LG전자 뒤편 미장,조적,철근,용접,보일러,잡수리,묘이장 대표 이 동 식 ☎(062)956-3727

노을길 서구 화정동 미래도21병원옆 마트앤마트골목 퓨전요리전문,꼬치구이,해물탕,스테이크정식 왕족발,단체예약손님환영 ☎(062)362-3456

장터국밥(용봉점) 북구 용봉동 용봉동사무소옆 각종모임,단체예약환영 대표 김 옥 빈 ☎(062)526-3445

푸른건강원 북구 풍향동 광주교대편 E마트건너편 양파즙,배즙,포도즙,각종과일즙 대표 이 동 현 ☎(062)512-2752